희망을 찾아서

▲ 공무원 합격생 고은성, 최재혁, 진대경 씨(왼쪽부터)

시각장애를 딛고 공직진출의 꿈을 이뤄낸

최재혁 · 고은성 · 진대경씨

흔히들 공무원시험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시각장애인인 최재혁 · 고은성 · 진대경 씨는 장애를 극복하고 2010년 서울시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웅진패스원의 학습지원이 그들에게 길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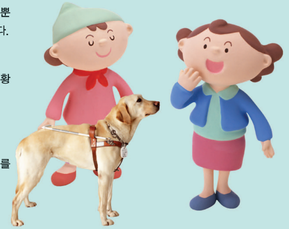
사회악자층과 공직진출을 꿈꾸는 시각장애인 후배들을 위해 활발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파이팅을 외쳐본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웅진패스원 직원들과 함께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안내견에 대한 기초상식

1) 안내견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행할 뿐 시각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 안심하세요! 덩치만 컸지 물거나 짖지 않습니다.
3) 시각장애인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면 주인이 당황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4) 먹을 것은 주지 마세요!
   늘 먹는 사료 외에는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5) 안내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www.helpdog.org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6925-111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7권 2호 통권 127호

2011년 2월 15일 발행

발행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 최동익 **편집** : 노상미
전화 : 02-6925-1121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T. 02-2091-1255)

〈표지 사진설명〉 – 아래쪽부터
·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 제 5회 프리즘 프라이즈 시상식
· 2010년 서울시공무원 합격생들

손으로 보는 세상

2011. FEBRUARY | Vol. 127호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완전한 참여를 여는 새로운 10년'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한 2011년 장애인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완전한 참여를 여는 새로운 1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동범 사무총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애계 관련 인사는 물론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증성 공동대표

우리 연합회에서는

개관 20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동익 연합회장과 한정석 관장을 비롯해 박노달 · 임안수 전 연합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설명 1. 최동익 연합회장 / 2. 임안수 전 연합회장 / 3. 박노달 전 연합회장
4. 정년을 맞은 해피콜센터 노광호 전 소장(왼쪽)

▲ 20년 근속 표창을 받는 이승호 과장과 황덕경 부장(왼쪽부터)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정석 관장

우리 연합회에서는

201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워크숍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의 청평풍림리조트에서 실시됐다.

40여명의 직원들은 2011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최동익 연합회장의 일대일 피드백을 거쳐 2011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을 확정지었다.

뉴스앨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월 17일 금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점자 연하장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0년12월16일 취업정보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구직자와 취업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장애인골볼협회는 지난 1월 12일에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병헌(민주당 정책위원장) 대한장애인골볼협회 회장과 국가대표 남자골볼 선수단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홍석조 상임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포커스

시각장애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미술작품**을 만나다

'2010우리들의 눈 전(展) - 제5회 프리즘프라이즈 수상작 전시회'

베토벤의 웰광소나타는 그가 청각을 잃은 후에 작곡한 곡으로, 곡에 담긴 베토벤의 고뇌는 듣는 이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한다고 한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든 미술작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있을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우리들의 눈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제 5회 프리즘프라이즈 미술 공모전을 시행했으며, 80여점의 작품 중 1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김정완, 최범서(한빛맹학교, 초5)학생의 공동작품인 〈동물의 왕국〉이 차지했다.

수상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우리들의 눈 갤러리' 에서 열린 '2010우리들의 눈 전(展) – 제5회 프리즘프라이즈 수상작 전시회' 를 통해 소개되었다.

[사진제공–(사)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 우리들의 눈 갤러리 전경

▲ 대상을 받은 김정완, 최범서(한빛맹학교, 초등5)학생의 작품 〈동물의 왕국〉

▲ 맹학교 미술수업 장면

▲ 제5회 프리즘프라이즈 공모전 시상식